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의 성격 및 동기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준비행동에서의 차이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송 지 은

대학생의 성격 및 동기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준비행동에서의 차이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송 지 은

# 인 준 서

송지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준비를 돕는 차별적인 진로상담 개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개인내적인 변인으로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에 따른 군집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로 진로준비행동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대학생 568명(남=214명, 여자=354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 5요인과 목표지향성에 따라 네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1은 낮은 개방성, 친화성, 숙달목표지향성을 보이고 높은 수준의 신경증과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을 보인 '회피-내적경직형', 군집 2는 신경증, 친화성,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은 낮으나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성취-자기주도형', 군집 3은 높은 신경증과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하며 외향성과 성실성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회피-내적혼돈형', 군집 4는 높은 친화성, 외향성과 낮은 신경증, 개방성을 보이며 수행접근목표 및 수행회피목표를 지양하는 '성취-안정추구형'이다. 각 군집별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를 One-way ANOVA로 확인한 결과, '성취-자기주도형', '성취-안정추구형', '회피-내적경직형', '회피-내적혼돈형'순으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성취-자기주도형'이 다른 군집들과, '성취-안정추구형'과 '회피-내적혼돈형'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성격과 목표지향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각 군집의 특성에 대한 해석과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성격 5요인, 진로성취목표, 진로준비행동, 군집분석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4
II. 이론적 배경 .....	5
1. 대학생시기의 진로 .....	5
1) 대학생의 진로발달 .....	5
2) 진로준비행동 .....	7
(1)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	7
(2)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
2. 성격 .....	11
1) 성격의 주요이론 .....	11
2) 성격 5요인 이론 .....	13
(1) 발달배경 .....	13
(2) 성격의 5요인 .....	15
(3)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 .....	17
3. 동기 .....	19
1) 성취목표지향성 .....	19
(1) 발달배경 .....	19
(2) 성취목표지향성 하위요인 .....	20

(3)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준비 행동 .....	22
4. 성격,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	23
III. 연구 방법 .....	25
1. 연구 대상 .....	25
2. 측정 도구 .....	26
1) 성격척도 .....	26
2) 성취목표 척도 .....	27
3) 진로준비 행동 .....	28
3. 자료 분석 .....	29
IV. 결과 .....	30
1.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차이검증 .....	30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	32
3.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33
4. 성격과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른 군집유형 .....	35
5. 군집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진로준비행동 차이 .....	38
1)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	38
2)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	40
V. 논의 .....	43
1. 결과에 대한 논의 .....	43
1) 성격 5요인,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	43
2) 성격과 동기에 따른 군집유형별 특징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	45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	4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5
<표 2> 성격 5요인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	27
<표 3> 성취목표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	28
<표 4>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차이검증 결과 .....	30
<표 5> 학년에 따른 측정변인 차이검증 결과 .....	31
<표 6>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	32
<표 7>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성격 5요인의 단순회귀분석 .....	34
<표 8>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의 단순회귀분석 .....	35
<표 9> 군집화 일정표 .....	36
<표 10> 최종 군집별 중심점 .....	36
<표 11>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차이 .....	38
<표 12> 군집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검증 .....	41

## 그림 목 차

[그림 1]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른 응답자 분포 .....	26
[그림 2] 성격과 동기수준에 따른 대학생 군집유형 .....	38
[그림 3] 군집별 학년과 성별 분포 .....	40
[그림 4] 군집별 학교유형 분포 .....	40
[그림 5] 군집별 진로준비행동 차이 .....	42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진로는 전생애에 걸친 주요 발달과업 가운데 하나로 대학생 시기에는 자기 개발과 더불어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해가는 준비를 한다. 조기 구직활동이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김명언, 이지영, 장재운, 2005), 대부분의 대학생이 직업선택에 대한 불확실함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고(Paul, 2010), 대학생의 66.4%가 대학생활 중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송소원, 안연주, 유지현, 2007) 대학생의 진로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김봉환, 1997).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 열풍으로 많은 대학졸업자들이 양산되었으나 세계 경제 침체와 국내 경기성장 둔화로 인해 노동시장은 수급불균형의 구조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88만원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란 유행어는 청년층의 진로발달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성별 구분없이 지난 10년간 청년층(15-29세)의 고용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0년대비 약 96만명이 감소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2011)의 자료 또한 2011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54.5% 그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청년층의 진로선택과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층의 진로발달과 취업지원을 법으로 보장하고 상담센터에서도 진로상담을 필수 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학문영역에서도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상담학연구'와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에 실린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주제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는 그 주제와 대상이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직

업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발달, 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 진로사정 연구 순으로 5가지의 주제가 전체 논문의 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탐색, 직업적응등의 주제는 모두 3%미만으로 나타났다(김계현, 이자명, 조항, 2009). 지금까지 진로관련 연구들이 진로목표 달성을 돕는 행동변인을 소홀히 다루어 왔지만(김봉환, 김계현, 1997), 최근 연구들에서 직업탐색과 같은 진로준비행동의 강도와 노력이 취업가능성(면접, 합격통보)과 직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 Saks, 2005; Saks & Ashforth, 2000; V. Hooft, Born, Taris, & Flier, 2004) 참고했을 때, 건강한 진로발달과 취업성공을 위해 대학 재학시절부터 진로목표설정과 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진로행동관련 연구는 학년,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심리적 독립,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등이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동을 선택하고 유지, 강화시키는 안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성격과 동기변인으로 구체화시켜 선정하였다.

성격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고,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양식이다(Phares, 1984). 개인차를 설명하면서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성격 5요인 모델이 지지됨(Goldberg, 1990; McCrae & Costa, 1996, 1999)에 따라 안정적인 성격변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성격과 진로준비 및 탐색행동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상관(김지연, 황매향, 2004; Caldwell & Burger, 1998) 또는 정적인 영향(유태용등, 2006; 안관영, 2005; 이상희 등, 2011)이 있다는데 결과들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다 사용된 성격척도가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NEO-PI 축약형, 직업선호도 검사의 하위 성격검사 등으로 비일관적이며, 성격척도의 일부 요인만을 사용한 연구도 있어 결과의 일치성을 말하기 어

럽다. 신경증과 진로준비 및 탐색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적상관이 있거나(이제경, 김동일, 2004; 이지영, 2004), 정적상관(천석준, 이기학, 2008) 또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김지연, 황매향, 2004; 조애리, 1998)는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기변인은 목표설정이 수행과 관련이 있고(Locke & Latham, 2002), 성취목표에 따라 다른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보이며 성취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Dweck & Leggett, 1990) 성취목표지향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Wanberg와 동료들은(2002) 직업탐색의 명확함(clarity)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업탐색목표가 중요하나 진로분야에서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고, 김경옥(2009) 또한 목표가 진로결정과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로분야에서 목표지향성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함으로써 진로분야에서의 목표지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국내 성취목표와 진로준비 및 탐색행동 연구는 소수지만 목표를 설정했을 때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보이며(이승구, 이제경 2008; 최현정, 2006), 목표지향성에 따라 준비행동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예진, 이기학 2010; 조한익, 오홍석,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성격의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라 어떠한 군집유형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며, 군집별로 진로준비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개인내적 변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진로상담시 차별적 진단과 효과적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가설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격 5요인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신경증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은 진로준비행동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이 존재하는가?

가설 3. 성격 5요인(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 친화성)과 성취 목표지향성 하위요인(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은 유의한 차이를 지닌 군집을 이룰 것이다.

**【연구문제 4】**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의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4.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시기의 진로

#### 1) 대학생의 진로발달

과거에는 평생동안 하나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진로를 직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였으나 현대에는 직업의 종류, 직무 내용,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진로와 직업의 개념을 구별하게 되었다.

1940년대 말까지 상담자, 교육자, 및 일반인들에게 있어 직업선택은 생의 특정시점에 이루어지는 단 한번의 의사결정이었지만 1950년대부터는 진로행동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발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은 개인이 평생동안 수행하는 일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우연적 요인 등의 발달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Zunker, 2002). 1970년대를 거치면서 진로발달은 직업선택의 개념 보다 더 포괄적으로 확장되었는데(김아영, 유성경, 김봉환, 2005), 진로발달의 개념은 다차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진로발달은 특정 시기에만 중요하게 요구되거나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지는 평생의 과정이며, 심리적 성숙과 함께 진로관련 환경(가족, 학교, 동료, 사회적 가치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발달과제를 완수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진로발달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며 각 발달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순환되어진다(김은주, 2008).

학자에 따라 발달시기와 발달내용에 차이를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달이론의 주요 학자인 Ginzberg와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대상인 대학생의 진로발달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Ginzberg와 동료들(1951)은 경제학자, 심리치료가,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직업세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직업선택을 하나의 발달과정으로 간주하는 직업선택이론을 전개하였다(Zunker, 1998). 각 개인이 독특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흥미 등의 내적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조건 등의 외적 요인간의 타협을 통해 직업선택을 하며 이러한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발달한다. 그래서 직업선택은 어느 특정시기의 일회적 사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이다(김충기, 2000).

직업선택은 환상기(6세-11세), 잠정기(12-17세), 현실기(18세-성인초기)의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대상인 대학생은 현실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욕구와 능력, 환경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직업선택이 요구된다. 현실기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가는 탐색단계와 자신의 내·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 진로분야를 선택하는 구체화단계, 자신의 결정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특수화단계로 분화된다(김은주, 2008).

Ginzberg의 이론은 진로지도에 필요한 개인의 직업적 성숙도와 기준을 제공하여 직업선택과정에서 단계별 문제 발견과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발달단계 초기의 직업선택은 개인 흥미, 능력, 가치관에 좌우되지만 후기에는 외부적 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김충기, 1983).

Ginzberg가 진로발달 단계를 성인초기까지로 국한시킨 것과 달리, Super(1957)는 전 생애적 발달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단계들이 전적으로 나이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에 각 단계를 경험하고 반복할 수 있는 평생순환과정으로 보고 있다(Sharf, 2008). 그는 생애계획, 직업성숙도, 자아개념에서 직업자아개념으로의 전환, 진로유형 4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직업 또는 일에 대한 자아개념이 개인의 직업선택행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가정하였다(김은주, 2008). 이러한 자아감은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적절한 직업과제의

수행과정을 통해 직업적 자아정체감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부터 대학생 시기에 이르기까지 직업적 자아정체감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진다(Blustein, 1989).

Super의 연구는 진로발달을 성장기(출생-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5-64세), 은퇴기(65세이후)의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탐색기는 구체화, 특수화, 실행 3단계로 재분화되고, 확립기는 안정화, 공고화, 발전단계로 나뉘어진다(Sharf, 2008). 대학생은 이 가운데 탐색기 후반, 확립기 초반에 해당되며 자신의 흥미와 가치, 능력을 재평가하고,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선호를 구체화시키며, 직업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업을 선택하여 종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Ginzberg와 Super의 발달이론에서 제시한 대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욕구와 능력, 환경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목표를 구체화시켜 직업에 입문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게 된다. 유지현, 송소원, 안연주(2007) 연구에서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재학생 의식조사 결과, 대학생의 66.4%가 대학생활 중에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은 개인과 환경의 이해발달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도우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2) 진로준비행동

### (1)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국내연구는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행동수준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 개입의 필요성 제기와 진로행동변인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활

성화되고 있다(김봉환, 1997; 이제경, 1997; 최동선, 2003). 진로행동변인은 진로 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노력과 결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으로 보았다. 즉, 그는 세가지 측면-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였다. 정보수집 활동이란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등과 같은 자신의 정보 및 직업현황, 전망, 입직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과 같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직업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을 포함하여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도구를 구비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준비하는가를 말한다.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을 Blustein과 Flum(1999)은 자신과 직업세계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이자, 실제 탐색행동을 행하고 유지하려는 동기를 포함한 태도, 경험을 통해 형성하고 발달하는 탐색기술이라 보면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을 수반하는 전생애 걸친 활동으로 개념화하였다. 자기탐색은 적성검사, 능력검사등을 받거나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진로 목표들을 통합하는 것, 자신의 욕구, 적성, 소망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환경탐색은 직업에 대한 홍보물을 요청하거나 가능성 있는 진로와 관련된 임시직을 찾으며, 진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이고 외현적인 활동을 말한다(조애리, 1998).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을 Solberg(1967)는 직업탐색 계획단계와 선택단계로 나누었다. 계획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고려할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시간, 노력, 돈 등을 적절히 할당하여 다양한 정보원(친척, 신문,

고용주, 친구 등)을 통해 가능성 있는 직업들을 탐색한다. 이러한 준비행동 기간이 지나면 선택단계에서 이력서를 보내거나 면접을 하는 등의 공식적인 탐색 활동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Bowen(1982)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olberg의 모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Blau, 1993), Solberg의 직업탐색모델은 전반적인 진로가 아니라 취업만을 고려하여 취업 이외의 진로를 모색하는 행동(진학, 유학 등)은 제외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은주, 2008).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은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가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입사지원과 면접, 시험응시 등 장기적으로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직업탐색(Job Search)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며(이제경, 김동일, 2004) 진로준비행동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면한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봉환, 1997; 이제경, 2004). 취업준비행동의 공통적인 요인은 취업준비과정에서 찾는 정보, 정보출처, 투자시간과 노력 3가지이다(이승구, 이제경, 2008).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직업탐색행동, 취업준비행동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4개념 모두 목표를 선택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자신과 환경에 대한 탐색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탐색행동은 입직과 취업 이후의 진로에 관한 정보탐색을 염두하고 있어 단순히 직업을 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 직업탐색행동이나 취업준비행동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직업을 구하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업이외에 다양한 진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로준비행동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 (2)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계현과 김봉환(1997)은 진로선택을 미리 예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행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대학생 중심의 진로준비행동과 탐색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진로행동관련 변인으로는 학년,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심리적 독립,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등이 연구되어 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 및 탐색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곽민호 2012; 김봉환, 1997; 김은주, 2008; 박고운, 이기학 2007;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제경, 김동일, 2004; 이현림, 송재영, 2004; 조지혜, 2007). 자기효능감은 높을수록 진로준비 및 탐색활동에 좋은 수행력을 보였다(김수리, 이재창 2007; 김선중, 2005; 이제경, 김동일, 2004; Betz & Blustein, 1989; Solberg, 1995; Voyten, 1997).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와 직업획득 가능성 기대를 매개로 진로목표 추구활동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였는데, 국내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난미, 2006; 이정애, 최응용, 2010).

다음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 중에서도 진로준비행동 노력이 미비하거나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됨에 따라(김봉환, 1997; Newman, Fuqua, & Minger 1990) 의사결정수준과 행동실현 외에 다른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유형화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김은주, 2008; 이예진, 이기학; 2010). 동기관련 국내 연구에서, 박고운과 이기학(2007)은 내적동기와 확인된 조절이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예진, 이기학(2010)은 진로준비행동이 자기결정욕구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리

적 독립에 관한 연구결과,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들의 독립적인 진로 결정과(김정미, 2004) 진로탐색을(Lee & Hughey, 2001)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Lopez와 Andrew(1987)는 청년 후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선택 및 수행연구를 통해,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과 안정된 직업정체감 획득이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갈등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이득연, 홍경자; 2004).

김선중(2005)과 이명숙(2003)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낮으며, Blustein(1997)은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대학생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다른 연구결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송재영, 이현림, 2004; 이득연, 홍경자 2004; 조명실, 최경숙 2007). 광민호(2012)는 학교의 진로지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촉진되고, 이현림, 송재영(2004)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자존감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성격

### 1) 성격의 주요이론

성격의 이론적 접근은 인간행동에 대한 가정과 접근 방법에 따라 정신분석학적 이론, 현상학적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및 특성 이론 4가지로 구분되고 있다(이주일, 2010).

정신분석이론의 Freud(1938)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 3가지 요소가 함께 존재하여 요소들간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개인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 발달단계에 따라 세 요소는 상대적인 우위에 차이가 있으며 원초아의 욕구나 충동을 자아와 초자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는가가 성격형성의 핵심이라 설명한다.

현상학적 또는 인본주의적 이론의 Rogers(1951)는 성격은 모든 경험의 중심이 되는 자아로, 자극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과 의미부여, 자기개념의 차이가 개인간 성격차이를 만드는 것이라 보았다.

행동주의 이론은 성격의 많은 요소들이 사회화와 학습에 의한 것이라 강조하며, Bandura(1986)는 성격을 개인 내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간의 상호작용, 사회 학습과정에 의한 자기조절능력, 자기효능감의 차이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특성이론의 Allport(1937)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traits) 차이에 의해 개인간 성격차이가 생긴다고 보고, 특성을 기본특성, 중심특성, 이차적 특성으로 구별하였다. 기본특성은 개인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일반화된 성향이고, 중심특성은 기본특성보다 덜 확산적이지만 개인을 특징지어 주는 '외향적이다, 근면하다, 성실하다'등의 일반화된 성향이며, 이차적 특성은 특수하고 제한된 특성을 말한다. 연구 후반, 그는 특성을 공통특성과 개별특성으로 구분하였는데, 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비교해 줄 수 있는 공통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성격 5요인 모형으로 발전하게 된다.

안창규, 채준호(1997)는 성격을 개인이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개인의사나 정서를 포함한 행동의 독특한 패턴이라 하였고, Phares(1984)는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고,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양식으로 정의했다. 즉, 성격이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일관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성격심리학자들이 개인차를 설명하는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성격특성에 관심을 가져오면서, 최근에는 성격특성 차원이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5요인 모델(Big Five Structure/ Five factor Model)'이 성격기능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의하는 모델로 지지되고 있다(Goldberg, 1990; McCrae & Costa, 1996, 1999).

## 2) 성격 5요인 이론

### (1) 발달 배경

성격 5요인은 두 가지 연구 방법, 어휘가설에 의한 접근과 심리학적 구성개념들에 기초한 성격 질문지들의 요인 분석 결과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이경임, 1994).

어휘가설에 의한 접근은 성격을 기술해 주는 언어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개인차로 나타나는 성격특성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Allport와 Odbert(1936) 등은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특성들이 형용사에 부호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전에 있는 술어들을 분류해 나갔다. 그들이 분류한 4가지 특성 중, 첫 번째 특성차원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행동경향성으로 후기 성격 구조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Cattell(1965)은 Allport와 Odbert의 목록을 활용하여 성격 구조에 대한 다차원적 모델을 구성하고자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35개의 특성 변인을 추출해 내었다. Fiske(1949), Tupes와 Christal(1961)은 Cattell의 변인에서 5요인 구조를 발견하였는데 특히, Tupes와 Christal의 5요인-정열성(Surgency),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Dependability),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문화(Culture)-이 이후 "Big Five"로 불리어졌으며 이 요인들은 포괄적이고 뚜렷하며 특수한 성격 특성들을 요약해준다.

Norman(1963)은 Allport와 Odbert의 목록 편집을 통해 성격기술표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는 Big Five차원에 기초한 술어들의 범주화를 통해 현대적인 분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Goldberg(1989)는 Norman의 특성 목록을 사용하여 범주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요인추출과 회전방식을 통해 Big Five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성격질문지의 요인분석을 통한 접근은 Paul Meehl(1962)의

Minnesota-Ford Pool of Phenotypic Personality Items 구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성격특성 목록은 진단가와 심리치료자들이 환자를 기술한 문항들과 표현들을 13개의 범주로 분류한 것이다.

Eysenck(1961, 1991)는 성격을 생물학적인 개인차로 보고, 질문지 문항들의 요인분석에 따라 성격구조에 대한 3요인-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Neuroticism), 정신병(Psychoticism)-모델을 구성하였다. Buss와 Plomin(1975)은 기질특성은 타고난 것으로, 발달 초기에 나타나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4차원-정서적 안정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bility), 충동성(Impulsivity)-으로 특성을 구분지었다.

1980년대 McCrae와 Costa는 Eysenck, Spielberg, Wiggins의 검사들과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포함한 다양한 질문지들을 통합하고자 인성검사들의 결합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그들은 모든 개인들에게 5개의 특성요인-정서적 민감성(N: Neuroticism), 외향성(E: Extraversion), 개방성(O: Openness to Experience, Culture, Intellect), 친화성(A: Agreeableness), 성실성(C: Conscientiousness, Will to Achieve)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McCrae와 Costa는 5요인 측정을 위하여 1985년에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를 거쳐 1992년에 친화성과 성실성을 추가한 5가지 주요 요인과 각 주요 요인에 대한 6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R)를 제작하였다(Zunker & Osborn, 2002). 1980년대 이후, Big five 성격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연구들도 축적되어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안창규, 채준호(1997)의 표준화 작업으로 한국인에게도 안정적인 Big Five 성격요인이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정상인의 성격기술, 진로지도자료, 정신건강 측정에 유용한 검사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안창규, 안현의 등의 공동연구자들에 의해 전 세계 51개 문화권 국가들의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Big Five

성격요인이 발견됨을 보고하였다(McCrae et al, 2005; 김옥희, 2008 재인용). 또한 26개국 대상의 2번째 NEO-PI-R 분석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 차이가 나타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여성은 신경증과 친화성, 온정, 감정에 대한 개방성에서, 남성은 생각에 대한 주장성과 개방성에서 높은 자기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Costa, Terracciano, & McCrae, 2001).

## (2) 성격의 5요인

다섯 요인에 대한 명명은 학자들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을 의미한다(McCrae & Costa, 1996; Goldberg, 1990). 다섯 요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향성(Extraversion)은 대인관계 선호와 관계에서의 주도성 정도를 나타낸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교적, 열정적, 주장적, 낙관적이며 동료들로부터 자극을 받는 것으로 기술된다(Reed, Bruch, & Hasse, 2004). 외향성은 긍정적 감정과 관련 있으며 리더역할을 맡거나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Watson & Clark, 1997). 반대로 낮은 사람은 조용하고 수줍어하며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으나(John, 1990a), 내향성은 외향성의 반대가 아니라 외향적인 측면들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Costa & McCrae, 1992). 하위요인으로는 사교성, 적극성, 자기주장성, 활동성등이 포함된다. 진로준비행동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활발한 접촉을 통해 진로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과 편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정중하고 협조적이고 인내심이 많으며 이타적인 특성을 보이나, 낮은 사람은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 질투심이 많은 특성을 가진다. 하위요인은 신뢰성, 이타성, 순응성, 정직성, 온정, 겸손으

로 구성된다(김유미, 2008). Lounsbury(1999)와 동료들의 대학생 대상 성격과 진로결정 연구에서, 성실성과 친화성이 진로결정과 정적 관계, 신경증과 부적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친화적인 사람들은 진로선택과 준비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지키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끈기와 실수없이 자신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 성격을 의미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감을 주는 특성이 있고 목표지향적, 미래지향적인 성취욕구를 나타낸다. 낮은 사람은 일관성이 없고 산만하여 책임감이 없다. 하위요인은 유능감, 조직화, 책임감, 성취지향성, 자율성, 신중함이 포함된다(김유미, 2008). 진로장면에서, 성실성은 효율적인 구직활동(Wanberg, Watt, & Rumsey, 1996), 유지(Barrick, Mount, & Strauss, 1994), 참여(Judge, Martocchio, & Thoresen, 1997)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실성의 성취지향(근면), 독립성(책임감, 신중함), 질서정연(계획적, 조직적)한 특징이 좋은 직업수행을 가장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rrick & Mount, 1991; Salgado, 1997). 이로 미루어 볼 때, 성실성이 높을수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목표를 세우고,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며, 그 성과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증(Neuroticism)은 정서적 불안정성, 환경에 대한 민감성, 긴장 정도를 나타내며 정서적 민감성 또는 정서적 불안정성이라고도 부른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사람은 긴장, 우울, 좌절, 죄책감, 비합리적 사고, 낮은 자존감, 충동에 대한 낮은 통제력, 비효율적인 대처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rae & Costa, 1987). 반면, 낮은 사람은 평온하고 이완되어 있으며 쉽게 동요되지 않는다(McCrae & John, 1992). 하위요인에는 스트레스 취약성, 불안, 자의식, 우울감, 적대감/분노, 충동성이 있다. Jordaan(1963)은 직업탐색과정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어려운 질문과 걱정을 야기하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는데, 높은 신경증을 가진 사람은 이 과정에서 예민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고, 목표나 우선순위 설정에서 부족한 면을 보인다(Caldwell et al, 1993 ; McCrae & Costa, 1991; O'Hare & Tamburri, 1986). Reed와 동료들(2004)은 이들이 겪는 부정적인 정서가 다양한 정보탐색 활동에서 낮은 수행력을 갖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McCarthy와 Goffin(2004)은 면접에서 높은 불안을 보이는 지원자는 수행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진로준비과정에서 신경증이 높을수록 목표가 없거나 적절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준비행동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방성(Openness)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 선호와 관련이 있으며 높은 점수의 사람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고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Roberts & Robins, 2000). 하위요인은 상상력, 심미적 감수성, 내적 감정의 민감성, 변화선호 경향성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개방성에서 높은 점수가 높은 IQ와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McCrae & John, 1992), 다양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진로결정(McCrae, 1996), 진로정보탐색활동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Reed et al, 2004). Reed와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성은 정보수집활동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방성의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는 특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수집활동과는 반대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개방성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성은 진로준비행동 추구방식에 따라 행동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는 연구대상이나 측정도구가 일관되지 않는지만 결과는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진로준비행동 및 탐색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김지연, 황매

향, 2004; Caldwell & Burger, 1998) 또는 정적영향(유태용 등, 2006; 안관영, 2005; 이상희 등, 2011)을 미치거나 외향성과 성실성만이 직업탐색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fer et al, 2001; Wanberg et al, 2000). Hoyer(2009)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외향성이 네트워킹 행동(친구나 지인을 만나거나, 직업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소개받는 등)을 설명하였고, 내향성은 정보수집과 준비실천 과정에서 소극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어 외향성에 비해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고하여(이제경, 김동일, 2004; 장선량, 2004; Harmer & Bruch, 1997) 성격특성에 따라 다른 진로행동 양상을 보였다. 유태용 등(2006)은 외향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호감이 가고, 성실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부정적이거나 현실도피적인 행동을 덜하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행동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지영(2004)의 연구는 성실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직업탐색활동을 활발히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탐색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결과를 확인했다. 신경증이 높을수록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체험에 민감하여 진로탐색행동에서 큰 불안을 느끼거나(Wang, Jome, Hasse, & Bruch, 2006) 탐색행동을 철회(Saks & Ashforth, 2000), 불충분한 상태에서 종결하는(Hardin, Varghese, Tran & Carlson, 2006) 연구결과들이 이를 지지하며(이제경, 김동일, 2004), Saks와 Ashforth(2000)는 불안이 직업탐색 자기효능감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불안이 낮으면 직업탐색효능감이 높아져 직업탐색행동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정서적 불안정성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김지연, 황매향, 2004; 조애리, 1998), 불안이 오히려 진로탐색행동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불일치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천석준, 이기학, 2008; Reed et al, 2004). 천석준과 이기학(2008)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향상초점전략이 결부되어 높은 진로탐색행동 의도로 이어진 것이라 해석하였다. 향상초점이란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다소

위험하더라도 도전적인 자세로 성취목표에 접근하려는 것을 말한다(Higgins, 1997).

### 3. 동기

#### 1) 성취목표지향성

##### (1) 발달 배경

진로 선택과 준비과정은 실천적인 행동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중요한 성취 과제이다. Atkinson(1966)은 성공적 행동을 유발하는 성취동기는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되는 과업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목표지향적 행동과 통하는 내적상태'라 정의하였다. 성취동기는 학문, 직업적 추구와 개인이 참여하고자 선택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나타나며(Spence, 1983), 높은 성취동기를 가질수록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실직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었다(Nurmi, Salmela-Aro & Koivisto, 2001)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봤을 때, 성취동기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성취동기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이론가들은 동기 성향과 행동사이를 매개하는 성취목표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Pervin, 1989). Locke와 Latham(2002)은 목표 설정이 수행과 관련이 있고, Dweck과 Leggett(1990)는 성취목표에 따라 다른 정서, 인지, 행동적 반응을 보이며 성취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성취 목표지향성은 성취상황에서 개인이 상이하게 접근, 개입, 반응하도록 하는 신념 패턴으로(Ames, 1992), 그 요인 구조를 분화시켜 왔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성취목표지향성에 관한 연구는 '숙달-수행'의 2요인구조가 전반적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숙달-수행접근-수행회피' 3요인구조로 분화되었다. Elliot과 Church(1997)는 성취목표를 유능성, 과제 숙련도를 발달시

키고 과정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숙달목표(mastery goal),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행접근목표(performance-approach goal), 부정적 평가에 대한 회피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둔 수행회피목표(performance-avoidance goal)로 개념화하였다. 최근에는 Elliot과 McGregor(2001)가 '접근-회피'와 '숙달-수행'을 포괄하는 4요인구조로 구분하였지만, 현재 4요인구조는 '숙달목표'라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특성에 '회피'라는 부정적 특성 결합의 어려움으로 성취목표지향성 연구에서 주류적 관점으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타당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박병기, 이종욱, 2007).

## (2) 성취 목표지향성 하위요인

### ① 숙달목표

숙달목표(mastery goal)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지향하고 수행자체를 중시하며 유능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목표성향을 말한다. 이들은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관심이 있으며 도전적인 과제 선호와 모험을 추구한다.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흥미,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으며 숙달목표 지향성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한다(Ames, 1992; Ames & Archer, 1988). 숙달목표지향성은 학습하는 동안 노력, 인내, 자기결정과 자료에 대한 몰입, 자기조절학습, 타인의 도움 요청, 정보에 대한 심층처리와 정보의 장기보전 등과 관련이 있다(Elliot & Church, 1997). 숙달목표 지향자에게 실패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제숙달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보가 되어(Ames, 1984) 어려운 과제 숙달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덜 경험한다고 한다(Dweck & Legget, 1988).

## ② 수행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performance-approach goal)는 타인보다 더 잘하거나 적은 노력으로 성공하여 자신의 우수함을 입증하려는 목표성향이다.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성취에 대한 욕구나 긍정적 가능성을 가지는 면에서 숙달목표와 비슷하나 외부적인 성취결과에 중점을 두고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행접근목표는 심층적인 학습전략보다 피상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Anderman & Young, 1994; Elliot et al, 1999; Meece & Samuel, 1999).

## ③ 수행회피목표

수행회피목표(performance-avoidance goal)는 실패에 대한 공포,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상대적인 무능력에 대한 회피지향성이다. 수행회피목표 지향자는 실패를 통해 자신이 그 과제를 잘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수행을 덜하게 되고 지속시키지 못한다(Deci & Ryan, 1980). 이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피하고(Dweck & Leggett, 1988) 심층적 처리과정이 없으며 암기 같은 피상적인 단기학습전략 사용과 관련 있다(Meece & Samuel, 1999).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은 학습활동을 지연시키고 조직적인 학습행동을 방해하며(Rothblum, 1990) 과제수행에 투자되는 시간, 과제에 대한 즐거움으로 측정된 내적 동기를 감소시킨다(Elliot & Harackiewicz, 1996). 수행회피 목표 지향자는 낮은 자신감, 부정적인 자아개념, 학습된 무기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Middleton & Midgley, 1997).

### 3)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준비행동

Wanberg와 동료들은(2002) 직업탐색의 명확함(clarity)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업탐색목표가 중요하지만 진로분야에서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고, 김경욱(2009)은 목표가 진로결정과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로분야에서 목표지향성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함으로써 진로분야에서의 목표지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성취목표관련 연구결과,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으며(강원덕, 안귀여루, 2010; 문선아, 2000; 조지혜, 2007), 성취목표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목표수준과 설정방법 차이에 따라 수행량에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정, 2006). Cote와 동료들(2006)은 직업탐색 목표가 뚜렷할수록 탐색강도와 구직성공 가능성(면접, 합격통보)에 정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특별한 목표가 없는 구직자는 구직활동에 실패하거나 탐색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고하였다. 이승구, 이제경(2008)의 연구는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설정하지 않은 경우보다 일자리 탐색경험, 취업지원 횟수, 학원수강등 구체적인 취업준비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나타냈다. 또한 조한익, 오홍석(2011)은 성취목표 접근을 지향하는 향상초점이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김경욱(2009)은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 수행회피목표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Elliot과 Church(1997)의 연구에서 숙달목표는 내재적 동기를 높이거나 실제 수행과는 관련이 없고, 수행접근목표는 내재적 동기와는 관련이 없으나 실제 수행은 증가시키며, 수행회피목표는 내재적 동기와 수행을 모두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예진, 이기학(2010)의 연구에서도 숙달목표만으로는 행동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집단에서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적극적이었던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 4. 성격,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성취목표지향성과 성격은 지금까지 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수행과 학습 방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성실성과 외향성은 학업 수행과 성공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성취지향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Busato, Prins, Elshout, & Hamaker, 2000), Zhang(2002, 2003)은 성실하고 개방적인 사람이 숙달을 강조하는 심층적인 학습을, 정서가 불안정한 학생은 표면적인 학습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긍정적인 정서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넓히고, 그 결과 신체적, 사회적, 지적 자원들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Fredrikson(1998)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Cote et al, 2006 재인용). 또한 Zhang(2003)은 친화성이 비성취지향적인 학습방식을 예측한다고 보고하며, 친화성이 표면적 동기(surface motive)와 성취동기(achieving motive), 표면적 전략(surface strategy)에서 유의한 부적상관, 심층적 전략(deep strategy), 성취전략(achieving strategy)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취동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위해 학습하고자 하는 수행집근목표지향성의 성격을 띤다. Triandis와 Suh(2002)는 친화성이 대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으며, 집단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사회규칙을 지키고 조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친화성이 진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나(김지연, 황매향, 2004; 안관영, 2006) 정적 상관(유태용 등, 2006; 이상희 등, 2011)이 있다는 불일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친화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경증은 학습목표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낮은 성취지향성, 구조적 환경을 강조하는 사고유형과 강한 관련이 있다(Chamorro-Premuzic & Furnham, 2003; Elliot & McGregor, 1999). 정서적 불안정성은 학업수행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Heaven, Mak, Barry, & Ciarrochi, 2002), 시험불안은 신경증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와 관련있다(Kanfer et al, 1996). Komarraju와 Karau(2005)연구에서 회피적인 학생들은 신경증, 외향성과 정적 관계, 성실성, 개방성과는 부적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와 함께,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이 성취를 설명하는 성격특성으로 보고되었다.

진로와 학업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비추어 볼때, 진로장면에서 성실한 학생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특성에 따라 진로목표를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며, 개방적인 학생은 자신들의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통해 진로목표를 성취하고자 높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향적인 학생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준비행동을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수준의 외향성은 정확한 목표없이 행동수준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경증적인 학생은 진로목표 접근방식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친화적인 성향의 학생들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추구하므로 진로결정과 준비과정에서 주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취적인 활동보다는 주변과 타협을 통해 준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학생은 진로준비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여 성취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높은 준비행동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하는 학생은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고,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반면,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는 학생은 실패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상으로 진로목표설정에 혼란과 지연을 보이고, 낮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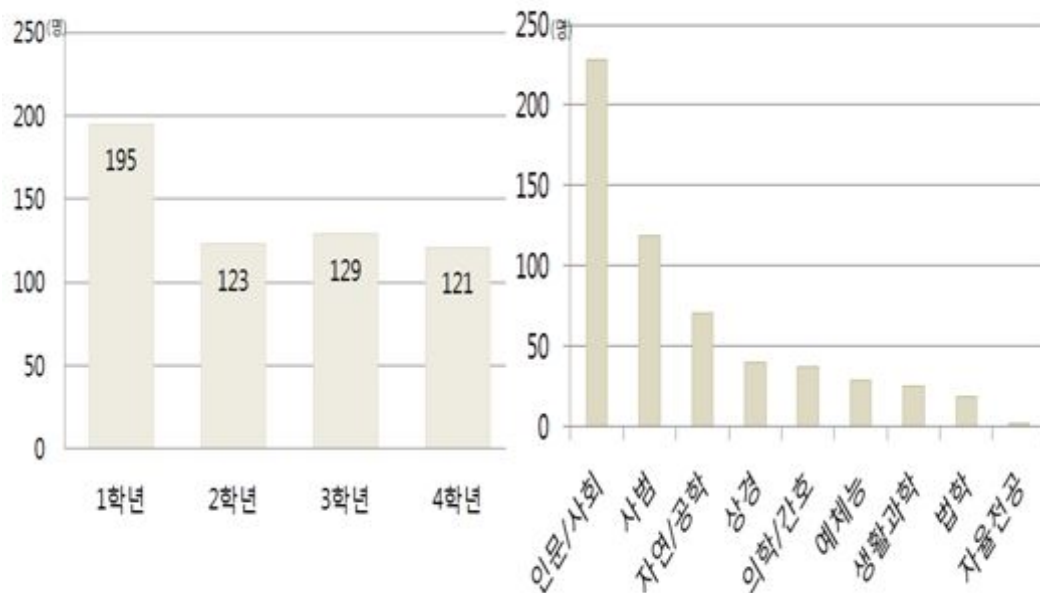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counterbalance를 위해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 척도의 순서를 바꾼 2가지 유형으로 6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32부를 제외한 총 568명의 자료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 학교유형, 전공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14	37.7
	여	354	62.3
학년	1	195	34.3
	2	123	21.7
	3	129	22.7
	4	121	21.3
학교유형	남녀공학	423	74.5
	여자대학	145	25.5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228	40.1
	자연/공학계열	70	12.3
	상경계열	40	7.0
	법학계열	18	3.2
	생활과학계열	25	4.4
	사범계열	119	21.0
	예체능계열	29	5.1
	의학/간호계열	37	6.5
	기타	2	4
합계		568	100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남자가 214명(37.7%), 여자가 354명(62.3%)으로, 평균연령은 21.07세(SD=2.07)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195명(34.3%), 2학년 123

명(21.7%), 3학년 129명(22.7%), 4학년 121명(21.3%)이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 남녀공학 학생이 423명(74.5%), 여자대학 학생이 145명(25.5%)였다. 학생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228명(40.1%), 사범계열 119명(21.0%), 자연공학계열 70명(12.3%), 상경계열 40명(7.0%) 순으로 많았다.



[그림 1]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른 응답자 분포

## 2. 측정 도구

### 1) 성격 척도

성격 5요인 측정을 위해 Costa와 McCrae(1992)가 제작한 NEO-PI-R(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의 축약형 질문지인 NEO-FFI(NEO Five-Factor Inventory, Costa & McCrae, 1992)를 김의철(2004b)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NEO-FFI는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동조성의 5개 하위요인에 각 12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5)'

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별로 점수의 합이 클수록 성격 경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의철(2004b)이 보고한 Cronbach  $\alpha$ 값은 신경증이 .86, 개방성 .62, 성실성 .81, 외향성 .83, 동조성 .6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alpha$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성격 5요인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신경증	1*, 6, 11, 16*, 21, 26, 31*, 36, 41, 46*, 51, 56	12	.85
개방성	3*, 8*, 13, 18*, 23*, 28, 33, 38*, 43, 48*, 53, 58	12	.63
성실성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12	.74
외향성	2, 7, 12*, 17, 22, 27*, 32, 37, 42*, 47, 52, 57*	12	.85
동조성	4, 9*, 14*, 19, 24*, 29*, 34, 39*, 44*, 49, 54*, 59*	12	.70
전 체		60	.69

\*역채점 문항

## 2) 성취목표 척도

성취목표지향성 측정을 위해 Elliot과 Church(1997)가 개발한 성취목표 척도 (Achievement Goal Items)를 장성수(1998)가 번안하고 진로장면에 맞게 김경욱(2009)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취목표를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3가지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으며 각 목표에 6개 문항씩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목표지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욱(2009)의 연구에서 보고한 Cronbach  $\alpha$ 값은 숙달목표가 .82, 수행접근목표 .81, 수행회피목표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alpha$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성취목표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  $\alpha$ 값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alpha$
숙달목표	1, 2, 3, 4, 5, 6	6	.82
수행접근목표	7, 8, 9, 10, 11, 12	6	.84
수행회피목표	13, 14, 15, 16, 17, 18	6	.84
	전 체	18	.79

### 3)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 정도 측정을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에 이명숙(2003)이 최근의 인터넷 진로정보 사이트와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및 진로상담센터가 활성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2문항(8번, 12번)을 추가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검사 문항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과 필요한 도구(교재, 장비, 자격증등)를 갖추는 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3가지 차원을 다루고 있다. 이 검사는 총 18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부터 '매우 그렇다(4)'의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봉환(1997)은 Cronbach  $\alpha$ 값을 .85, 이명숙(2003)은 .88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alpha$ 값은 .87이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한다.

첫째,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준비행동간의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성격, 동기 수준에 따라 몇 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첫단계에서 Wards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군집을 확정한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나뉜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차이검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군집분석을 통해 나뉜 집단들간에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차이검증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연구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표 4>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차이검증

	남성(N=214) M(SD)	여성(N=354) M(SD)	t
신경증	2.86(.62)	3.14(.60)	-5.358***
외향성	3.24(.63)	3.26(.59)	-.286
개방성	3.30(.44)	3.34(.45)	-1.137
친화성	3.31(.48)	3.40(.42)	-2.305*
성실성	3.48(.60)	3.38(.53)	2.076*
숙달목표	4.14(.64)	4.14(.54)	.072
수행접근	3.47(.76)	3.53(.71)	-.957
수행회피	2.84(.83)	3.10(.89)	-3.539***
진로준비	2.41(.48)	2.45(.48)	-1.015

\*  $p < .05$ , \*\*\* $p < .0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신경증( $t = -5.358$ ,  $p < .001$ ), 친화성( $t = -2.305$ ,  $p < .05$ ), 성실성( $t = 2.076$ ,  $p < .05$ ), 수행회피목표( $t = -3.539$ ,  $p < .001$ )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실성은 남성, 신경증과 친화성, 수행회피목표에서는 여성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남성은 성실한 성향의 특징, 여성은 신경증적이고 친화적인 성향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여성에 대한 결과는 Costa, Terracciano, & McCrae(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취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학년에 따른 측정변인 차이검증

종속 변인	1학년 (n=195) M(SD)	2학년 (n=123) M(SD)	3학년 (n=129) M(SD)	4학년 (n=121) M(SD)	F (3, 564)	사후 검증
신경증	3.05(.64)	3.07(.64)	3.07(.60)	2.93(.60)	1.475	
외향성	3.23(.66)	3.24(.61)	3.23(.54)	3.32(.58)	.650	
개방성	3.29(.45)	3.27(.46)	3.36(.41)	3.42(.48)	3.044*	
친화성	3.32(.43)	3.35(.48)	3.40(.43)	3.42(.45)	1.434	
성실성	3.32(.55)	3.38(.59)	3.48(.60)	3.53(.50)	4.521**	4>1
숙달목표	4.12(.63)	4.11(.58)	4.10(.53)	4.30(.54)	2.327	
수행접근	3.43(.80)	3.48(.71)	3.56(.68)	3.60(.69)	1.581	
수행회피	3.03(.95)	2.98(.85)	3.18(.78)	2.79(.82)	4.304**	3>4
진로준비	2.27(.51)	2.37(.39)	2.50(.45)	2.71(.41)	25.746***	1,2,3<4 1<3

\*\* $p<.01$ , 외향성, \*\*\* $p<.001$ , 준비행동 Dunnett T3, 나머지는 Scheffe 사후검증( $p<.05$ )

학년에 따라서는 개방성( $F=3.044$ ,  $p<.05$ ), 성실성( $F=4.521$ ,  $p<.01$ ), 수행회피( $F=4.304$ ,  $p<.01$ ), 진로준비행동( $F=25.746$ ,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신경증을 제외한 성격 하위요인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증가함을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성실성에서 1학년( $M=3.32$ ,  $SD=.55$ )과 4학년( $M=3.53$ ,  $SD=.50$ )간에 차이를 보였다. 졸업을 앞둔 4학년의 경우, 1학년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사되어 성실성을 보다 높게 지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기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은 3학년( $M=3.18$ ,  $SD=.78$ )이 4학년( $M=2.79$ ,  $SD=.82$ )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4학년은 졸업 후 계획과 실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3학년이 보다 회피적인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함을 보였고, 사후검증 결과 4학년이 1, 2, 3학년과, 3학년이 1학년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년과 진로준비행동이 정적관계임을 보고하였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곽민호 2012; 김봉환,

1997; 김은주, 2008; 박고운, 이기학 2007;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제경, 김동일, 2004; 이현림, 송재영, 2004; 조지혜, 2007).

##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수집된 568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인인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준비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신경증	-								
2. 외향성	-.431**	-							
3. 개방성	.034	.010	-						
4. 친화성	-.179**	.279**	.066	-					
5. 성실성	-.315**	.297**	.070	.075	-				
6. 숙달목표	-.163**	.245**	.349**	.070	.409**	-			
7. 수행접근	.057	.114**	-.022	-.214**	.271**	.238**	-		
8. 수행회피	.438**	-.163**	-.144**	-.016	-.254**	-.229**	.266**	-	
9. 진로준비	-.202**	.255**	.125**	-.021	.364**	.288**	.142**	-.180**	-
<i>M</i>	3.03	3.25	3.33	3.37	3.41	4.14	3.51	3.00	2.44
<i>SD</i>	.62	.60	.45	.44	.56	.58	.73	.87	.48

*N*= 568, \*\*  $p < .01$

성격 5요인 및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화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 하위요인과 진로준비행동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로준비행동과 성격 5요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향성( $r=.255$ ,  $p < .01$ ), 개방성( $r=.125$ ,  $p < .01$ ), 성실성( $r=.364$ ,  $p < .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 신경증( $r=-.202$ ,  $p < .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신경증적인 성격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고,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준비행동에 긍정적

인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로준비행동과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을 때, 진로준비행동과 수행회피목표( $r=-.180, p<.01$ )가 유의한 부적상관, 숙달목표( $r=.288, p<.01$ )와 수행접근목표( $r=.142, p<.01$ )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수행회피목표가 높으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고,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상관의 크기를 봤을 때, 숙달목표지향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좀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성격 5요인과 목표지향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하위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숙달목표는 외향성( $r=.245, p<.01$ ), 개방성( $r=.349, p<.01$ ), 성실성( $r=.409, p<.01$ )과 정적상관, 신경증( $r=-.163, p<.01$ )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은 이와 반대로 신경증( $r=.438, p<.01$ )과 정적상관, 외향성( $r=-.163, p<.01$ ), 개방성( $r=-.144, p<.01$ ), 성실성( $r=-.254, p<.01$ )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수행접근목표는 외향성( $r=.114, p<.01$ ), 성실성( $r=.271, p<.01$ )과 정적상관, 친화성( $r=-.214, p<.01$ )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연구 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해 보았을 때, 성격 5요인의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과 숙달목표지향성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며, 신경증과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이 높으면 낮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3.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순상관분석 결과, 성격요인의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기변인인 성취목표지향성의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에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예측력을 살펴보고자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세가지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

을 종속변인으로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표 7>과 <표8>에 제시하였다.

<표 7>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성격 5요인의 단순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진로 준비 행동	신경증	-.045	.034	-.059	-1.349
	외향성	.136	.035	.171	3.859***
	개방성	.120	.041	.112	2.916**
	친화성	-.117	.043	-.108	-2.710**
	성실성	.253	.035	.295	7.165***
		R=.423	R <sup>2</sup> =.179	F=24.501***	

\*\*  $p < .01$  \*\*\*  $p < .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준비행동은 성격 5요인에 의해 17.9% 설명되었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성격요인 중 외향성( $t=3.859$ ,  $p < .001$ ), 개방성( $t=2.916$ ,  $p < .01$ ), 친화성( $t=-2.710$ ,  $p < .01$ ), 성실성( $t=7.165$ ,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 $\beta=.295$ ,  $p < .001$ ), 외향성( $\beta=.171$ ,  $p < .001$ ), 개방성( $\beta=.112$ ,  $p < .01$ ), 친화성( $\beta=-.108$ ,  $p < .01$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로운 점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친화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상관을 보인 신경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1만이 지지되었으며, 이는 유태용 등(2006), 안관영(2005), 이상희 등(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친화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친화성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진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나(김지연, 황매향,

2004; 안관영, 2006) 정적 상관(유태용 등, 2006; 이상희 등, 2011)이 있다는 결과와 불일치한다.

<표 8>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의 단순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진로준비행동	숙달목표	.181	.036	.218	5.074***
	수행접근	.089	.029	.135	3.101**
	수행회피	-.092	.024	-.166	-3.835***
		R=.335	R <sup>2</sup> =.112	F=23.716***	

\*\*  $p < .01$  \*\*\*  $p < .001$

진로준비행동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성취목표지향성은 단순회귀분석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1.2%의 설명력을 가지며 숙달목표( $\beta = .218$ ,  $p < .001$ ), 수행회피목표( $\beta = -.166$ ,  $p < .001$ ), 수행접근목표( $\beta = .135$ ,  $p < .01$ )순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는 정적, 수행회피목표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 2-2가 지지되었다. 이는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할수록 높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이고,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할수록 낮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임을 의미하며 김경옥(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4. 성격과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른 군집유형

개인내적 변인인 성격 5요인(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과 동기유형을 나타내는 성취목표의 세가지 하위요인(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의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의 방법으로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를 통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은 데이터 간의 거리나 상관계수 등 유사도에 따라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합쳐 가는 방법으로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 Wards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 계층적 군집분석의 군집화 일정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군집화 일정표

단계	군집화 계수	계수 차이
560	2905.760	134.223
561	3039.983	135.716
562	3175.699	183.878
563	3359.577	196.643
564	3556.220	290.891
566	3847.111	688.889
567	4536.000	

1단계 분석결과, 4-5개의 군집이 제안되었으나 3-6개의 군집을 두고, 2단계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을 사용하였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거리를 나누어 각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최종 군집별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며 각 군집에 배정된 수가 비교적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군집을 4개로 정하여 가설 3을 충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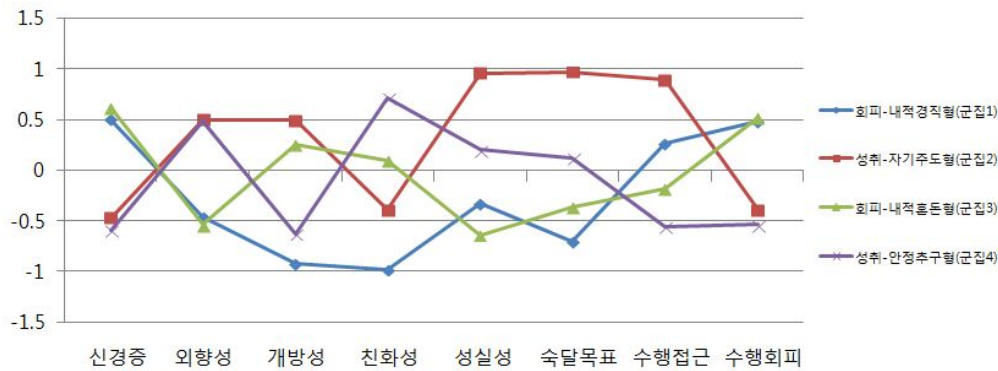
<표 10>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1 회피-내적경직형	군집2 성취-자기주도형	군집3 회피-내적혼돈형	군집4 성취-안정추구형
신경증	.50	-.47	.61	-.59
외향성	-.46	.50	-.54	.48
개방성	-.92	.49	.25	-.63
친화성	-.98	-.39	.09	.71
성실성	-.33	.96	-.64	.20
숙달목표	-.70	.97	-.37	.12

수행접근목표	.27	.89	-.18	-.56
수행회피목표	.48	-.39	.52	-.54
군집크기	98	116	179	175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  $M=0$ ,  $SD=1$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표 10>에 각 군집 별로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고, 차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림 2] 를 제시하였다. 군집 1은 낮은 개방성과 친화성, 낮은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 집단으로, 평균 이상의 신경증과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을 추구하고, 평균이하의 외향성과 성실성을 보인다. 이들의 성격적인 특성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선호하지 않아 제한된 정보와 협소한 환경에서 진로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피-내적경직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성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높은 수준으로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인 집단으로, 평균 이상의 외향성과 개방성, 평균이하의 친화성과 신경증, 수행회피목표를 보였다. 이들은 진로준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목표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취-자기주도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높은 신경증과 평균 이상의 수행회피목표지향성, 낮은 외향성과 성실성이 특징인 집단으로, 평균 수준의 개방성과 친화성, 평균 이하의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추구하며 군집 2와는 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불안이 높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계획적이고 추진력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기 어렵고 진로준비 행동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수행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회피-내적 혼돈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높은 친화성, 낮은 신경증과 개방성이 특징인 집단으로, 평균 이상의 외향성, 평균 수준의 성실성과 숙달목표지향성, 평균 이하로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한다. 이들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기보다, 주변과 안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환경에 순응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로준비에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성취-안정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 성격과 동기수준에 따른 대학생 군집유형

## 5. 군집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진로준비행동 차이

### 1)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차이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집 1은 98명(전체의 17.3%, 남 40명, 여 58명), 군집 2는 116명(전체의 20.4%, 남 46명, 여 70명), 군집 3은 179명(31.5%, 남 53명, 여 126명), 군집 4는 175명(30.8%, 남 75명, 여 100명)이 배정되었다.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림 3],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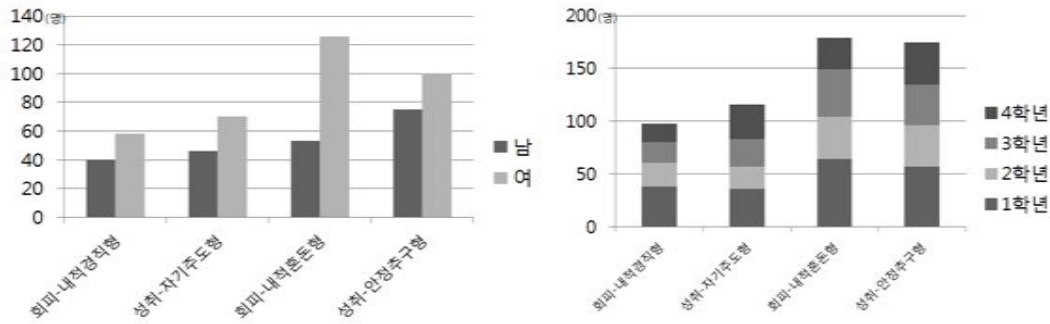
<표 11> 군집유형별 인구통계학적 차이

		군집1 (회피- 내적경직형)	군집2 (성취- 자기주도형)	군집3 (회피- 내적혼돈형)	군집4 (성취- 안정추구형)	$X^2(df)$	$p$
성별	남	40(40.8%)	46(39.7%)	53(29.6%)	75(42.9%)	7.567 (3)	.056
	여	58(59.2%)	70(60.3%)	126(70.4%)	100(57.1%)		
학교 유형	남녀공학	71(72.4%)	93(80.2%)	121(67.6%)	138(78.9%)	8.413* (3)	.038
	여자대학	27(27.6%)	23(19.8%)	58(32.4%)	37(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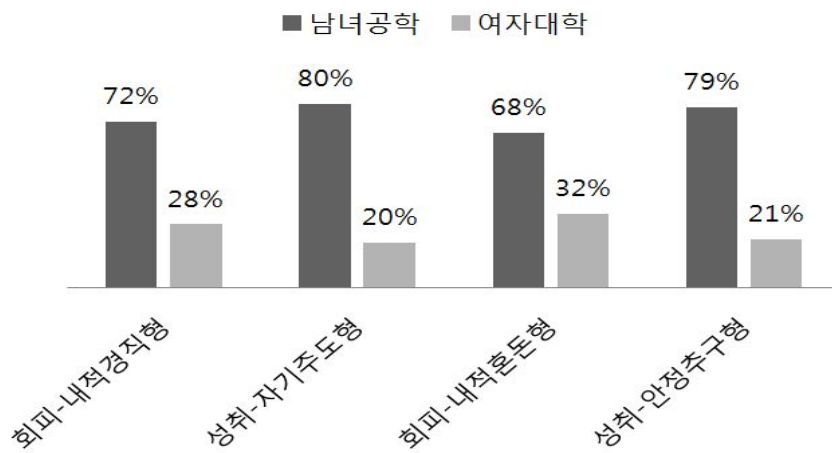
학년	1	38(38.8%)	36(31.0%)	64(35.8%)	57(32.6%)	8.160 (9)	.518
	2	23(23.5%)	21(18.1%)	40(22.3%)	39(22.3%)		
	3	19(19.4%)	26(22.4%)	45(25.1%)	39(22.3%)		
	4	18(18.4%)	33(28.4%)	30(16.8%)	40(22.9%)		
전공 계열	인문사회	34(34.7%)	43(37.1%)	84(46.9%)	67(38.3%)	27.643 (24)	.275
	자연공학	18(18.4%)	16(13.8%)	20(11.2%)	16(9.1%)		
	상경	5(5.1%)	11(9.5%)	14(7.8%)	10(5.7%)		
	법학	5(5.1%)	2(1.7%)	8(4.5%)	3(1.7%)		
	생활과학	6(6.1%)	3(2.6%)	6(3.4%)	10(5.7%)		
	사범	18(18.4%)	22(19.0%)	33(18.4%)	46(26.3%)		
	예체능	5(5.1%)	8(6.9%)	7(3.9%)	9(5.1%)		
	의학간호	7(7.1%)	10(8.6%)	6(3.4%)	14(8.0%)		
자율전공	-	1(.9%)	1(.6%)	-			

\*  $p < .05$

각 군집이 성별과 학교유형, 학년,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유형 [ $X^2(df=3, N=568)= 8.413, p < .05$ ] 을 제외한 성별, 학년, 전공계열과 군집 유형간 유의한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성별:  $X^2(df=3, N=568)= 7.567, p=.056$ , 학년:  $X^2(df=9, N=568)= 8.160, p=.518$ , 전공계열:  $X^2(df=24, N=568)= 27.643, p=. 275$ ] .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교유형은 성취유형에서 남녀공학 학생의 비율이 여자대학 학생보다 높았으며, 회피유형에서는 남녀공학과 여자대학 학생의 비율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집 2(성취-자기주도형)의 경우, 남녀공학 학생이 4배 더 많았으며, 군집 3(회피-내적혼돈형)은 2배정도 많았다. 하지만 남녀공학과 여자대학의 표집된 수가 큰 차이를 보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후속연구를 통해 학교유형간의 진로준비행동 차이를 확인해 봄이 필요하다.



[그림 3] 군집별 학년과 성별 분포



[그림 4] 군집별 학교유형 분포

## 2)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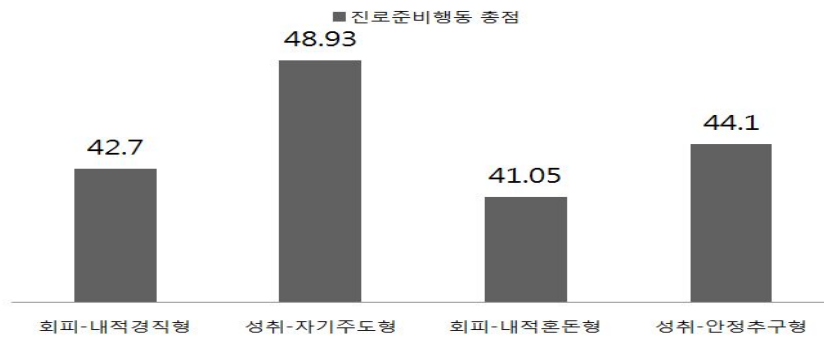
성격 5요인과 동기 수준에 따라 구성된 하위 집단들이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4개의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군집간에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가 지지되었다 [F(3, 564)=22.44, p<.001]. 군집별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후검증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고 [그림 5]로 나타내었다.

군집별 진로준비행동의 평균 점수는 군집 2(성취-자기주도형), 군집 4(성취-안정추구형), 군집 1(회피-내적경직형), 군집 3(회피-내적혼돈형)순으로 높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군집 2(성취-자기주도형)와 다른 군집들간, 군집 3(회피-내적혼돈형)과 군집 4(성취-안정추구형)간에 진로준비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군집 2(성취-자기주도형)는 진로준비행동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숙달목표지향성에서 네 집단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그룹으로, 진로준비행동수준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평균점수( $M=48.93$ ,  $SD=8.87$ )가 확인되었다. 군집 3(회피-내적혼돈형)은 군집들 중에 외향성과 성실성이 가장 낮고, 진로준비행동수준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던 신경증과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이 가장 높았던 집단으로, 진로준비행동 평균 점수( $M=41.05$ ,  $SD=7.95$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군집 3(회피-내적혼돈형)은 개방성을 제외하고 군집 2(성취-자기주도형)와 반대의 패턴을 보였으며, 군집 4(성취-안정추구형)와는 친화성, 수행접근목표를 제외한 부분에서 반대의 패턴을 보였다. 군집 4(성취-안정추구형)는 군집들 중 가장 낮은 신경증과 가장 높은 친화성을 보이며 수행회피목표 및 수행접근목표를 지양하는 유형으로, 진로준비행동 수준에서 2번째로 높은 평균점수( $M=44.10$ ,  $SD=8.81$ )를 보였다. 요약하면, 성취-자기주도형이 진로준비행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며, 회피-내적혼돈형이 준비가 가장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성취유형이 회피유형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군집유형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검증

종속 변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i>F</i> (3, 568)	사후검증 (Scheffe)
	회피-내적 경직형 ( <i>n</i> =98) <i>M</i> ( <i>SD</i> )	성취-자기 주도형 ( <i>n</i> =116) <i>M</i> ( <i>SD</i> )	회피-내적 혼돈형 ( <i>n</i> =179) <i>M</i> ( <i>SD</i> )	성취-안정 추구형 ( <i>n</i> =175) <i>M</i> ( <i>SD</i> )		
진로 준비	42.70(8.11)	48.93(8.87)	41.05(7.95)	44.10(8.81)	22.439***	1,3,4<2 3<4

\*\*\*  $p < .001$



[그림 5] 군집별 진로준비행동 차이

## V. 논의

###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과 동기에 따른 군집유형을 확인하고, 군집유형별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진로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성격 5요인 및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준비행동이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단순상관분석과, 선행연구에 따른 변인들의 예측력을 확인하고자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격 5요인과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 3가지를 군집 변인으로 하여 Wards의 방법과 K-평균 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4개의 유형(회피-내적경직형, 성취-자기주도형, 회피-내적혼란형, 성취-안정추구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X^2$ 검증을 통해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ANOVA를 실시하여 군집별 진로준비행동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격 5요인,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먼저 성별에 따라 남성은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성실성에서, 여성은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친화성과 부정적인 정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는 신경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Costa와 동료들(2001)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부정적인 평가와 미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수행회피목표 지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성격과 목표 추구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성실성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4학년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곽민호 2012; 김봉환, 1997; 김은주, 2008; 박고운, 이기학 2007;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제경, 김동일, 2004; 이현림, 송재영, 2004; 조지혜, 2007). 주목할 점은 3학년이 4학년보다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 상담시 이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예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유능감과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성격과 동기,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여 개별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성실하고 외향적이며 개방성이 높을수록(유태용 등, 2006; 안관영, 2005; 이상희 등, 2011), 개인의 능력개발을 추구하는 숙달목표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옥, 2009; 이예진, 이기학, 2010).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는 신경증이 높고(이지영, 2004; 이제경, 김동일, 2004; Hardin et al, 2006; Wang et al, 2006; Saks & Ashforth, 2000), 부정적인 평가와 취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할수록 준비행동 수준은 낮아짐(김경옥, 2009)을 확인했다. 흥미로운 점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던 친화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친화성의 하위요인이 이타성, 순응성, 정직성, 온정, 겸손, 신뢰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같이 개인보다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유교적인 가족중심주의 문화(박수길, 이영희, 2002)에서 높은 친화적 성향의 학생들은 진로결정이나 준비에서 가족 또는 주변인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 높은 민감성을 보이고, 갈등을 피하며 더 타협적인 모습을 보인다(Taras, Kirkman, Steel, 2010). 또한 Triandis와 Suh(2002)는 대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에서 친화성은 중요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 흥미, 동기와 같은 개인내적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육태도와 같은 개인외적 요인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김은진, 2001) 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Zhang(2003)은 경쟁적 상황에서 우수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학습동기와 친화성이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친화성이 비성취적 학습접근 방식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친화성이 수행접근 목표지향성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수행접근 목표지향성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관계로 확인됨에 따라 친화성이 관계중심의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율적인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친화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고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며,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여성의 수가 더 많음을 고려했을 때, 친화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여성의 특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2) 성격과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별 특징과 진로준비행동 차이

성격과 동기 차원을 통해 구분된 군집은 4개로, '회피-내적경직형', '성취-자주도형', '회피-내적혼돈형', '성취-안정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인 '회피-내적경직형'은 전체의 34.6%(남 18.7%, 여 16.4%) 응답자가 해당된 유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개방성과 협조적이고 인내하는 친화성, 능력 개발과 모험을 선호하는 숙달목표지향성이 가장 낮으나, 신경증과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은 높은 특성을 보인다. 즉, 이들은 진로에 대한 약한 내적 동기와 비관적이고 환경 변화에 민감함, 자기중심적인 성격 특성으로 새로운 정보와 경험 취득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진력있고 계획적이기 보다 비일관적인 준비행동을 보이고, 중도 포기하

거나 낮은 수준의 성취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유형은 네 유형 중 2번째로 낮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였고, 가장 높은 점수의 군집 '성취-자기 주도형'과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상담시, 먼저 이들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공감과 탐색, 인지적인 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내적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함께 탐색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지지해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인 '성취-자기주도형'은 21.8%(남 21.5%, 여 19.8%) 응답자가 해당되며 남녀공학 학생이 여자대학 학생보다 4배정도 많고, 다른 군집에 비해 4학년의 비율이 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집단들 중 가장 높은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를 보이고, 낮은 신경증과 친화성, 수행 회피목표를 지양하여 진로장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다. 이들은 적절한 목표설정과 계획적이고 추진력있는 준비활동, 다양한 체험선호와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보이며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를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준비행동의 양적, 질적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다른 군집유형들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진로상담이 필수적일 필요는 없어 보이나, 남녀공학과 여자대학 학생의 분포가 가장 크게 떨어져 여자대학 학생들의 진로준비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 유형인 '회피-내적혼돈형'은 22.9%(남 24.8%, 여 35.6%) 응답자가 해당되며, '성취-자기주도형', '성취-안정추구형'과는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높은 신경증과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하는 점에서 '회피-내적경직형'과 비슷하나, 평균적인 수준의 개방성과 친화성을 보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정적인 정서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중점을 둔다는 점은 '회피-내적경직형'과 다르지 않아 수행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4개의 유형 중 외향성과 성실성이 가장 낮아 비일관적이고 제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준비는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군집간 차이검증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성취-자기 주도형', '성취-안정추구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상담시, '회피-내적경직형'과 마찬가지로 불안과 부정적인 예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이들의 진로목표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능감 향상과 동기강화 방법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인관계 향상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인 '성취-안정추구형'은 응답자의 21.5%(남 35.9%, 여 28.2%)가 해당되며, 높은 친화성과 외향성, 낮은 신경증과 개방성을 보이고, 수행접근 목표 및 수행회피목표를 지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로장면에서 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주변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두 번째로 높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였으나 '성취-자기주도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앞서 친화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자녀의 진로에 대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로상담시 네 번째 유형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진로준비에 유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지, 너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진로목표설정과 추진에 수동적이지는 않은지 등을 탐색하여 진로준비활동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 진로준비로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내적 변인인 성격과 동기 두 차원으로 군집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진로상담시 성격과 동기에 따른 개별적인 진단과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긍정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가진 성격요인임을 재확인하고,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이 유의한 동기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요인들이 결합한 '성취-자기주도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상담에서 이 5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촉진시키도록 회기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전에 학습장면에서 주로 연구되어지던 목표지향성을 진로장면에 도입함으로써 대학생 진로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성취-자기주도형'을 통해 동기에서 두 목표지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정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며,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임을 확인하였다. '회피-내적경직형'과 '회피-내적혼돈형'을 통해 신경증과 회피목표지향성이 낮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이는 유형에 공통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여 진로상담에서도 내담자의 목표지향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네 유형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진로연구에 미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두 회피유형은 공통적으로 높은 신경증과 수행회피목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상담에서는 그들의 불안과 부정적인 사고를 먼저 탐색하고 공감과 지지, 인지 재구조화를 통해 경감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은 낮은 자신감, 유능감, 내적동기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비조직적이고 소극적인 진로준비를 하므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내적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

워크를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연계해 줌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성취-자기주도형'은 진로준비를 잘하는 바람직한 유형이므로 진로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시, 이들의 성격적 특징과 긍정적인 목표지향성을 촉진시키는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회피 유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높은 친화성을 보인 '성취-안정추구형'은 이들의 인적네트워크와 활용을 확인하여 자율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진로에 관한 정보수집을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녀 성비가 균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균등한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4개의 군집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기준점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다 균등하고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준비행동 척도의 기준 점수를 제공한다면 학생의 진로준비에 대한 개입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오던 성취목표지향성을 진로장면에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적절한 진로성취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마련이 어려웠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정교한 진로성취목표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내적 변인으로 성격과 동기를 채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친화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던 신경증은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분한 설명을 위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채택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장 바람직한 진로준비행동을 보인 '성취-자기주도형'은 학교 유형에서 남녀공학 학생이 여자대학 학생에 비해 4배 많았으며, 두 회피유형에서는 그 비율이 2배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포에서 학교유형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점을 상기했을 때, 남녀공학과 여자대학을 구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여자대학의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진로준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 곽민호 (2012). **서울대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탐색효능감, 부모애착, 학교 진로지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계현,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아영, 유성경, 김봉환 (2005). **청소년용 진로발달 검사개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김옥희 (2008). **NEO아동성격검사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08).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진 (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22, 97-116.
- 김지연, 황매향 (2004). 실업자의 진로결정수준·진로준비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637-646.
- 김충기(1999). 진로발달 접근을 통한 진로계획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0,

135-182.

- 노안영 (2003). **성격심리학 : 인간 이해 및 성장을 위한**. 서울. 학지사.
- 문선아 (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수길, 이영희(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 손진희, 손은령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안관영 (2006).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직업탐색활동의 변화와 성격의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41, 331-350.
- 안창규, 채준호 (1997). NEO-PI-R 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443-472.
- 양난미 (2006). 사회인지 진로 모형에 기초한 대학생의 진로선택 모형. **상담학연구**, 7(3), 835-847.
- 유지현, 송소원, 안연주 (2007).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재학생 의식조사. **상명대 학생생활연구소**, 21, 74-133.
- 유태용, 한태영,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노혜미 (2006). 성격이 실직자들의 행동, 생애만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1), 107-124.
- 이경임 (1994). 성격에 있어서 "Big Five"구조의 발달.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9, 39-68,
- 이득연, 홍경자 (2004). 가족의 심리 사회적 변인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 : 합

- 리적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결정 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상담연구**, 12(1), 109-120.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최춘희, 신상수 (2011). 재취업구직자의 성격 5요인이 구직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용지원집단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人間理解**, 32(1), 85-102.
- 이승구, 이제경 (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 이예진, 이기학 (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 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職業 教育 研究**, 29(2), 267-287.
- 이정애, 최응용 (2010). 사회인지 진로이론 관점에서의 대학생의 진로목표 추구 활동 분석. **상담학연구**, 11(2), 685-699.
- 이제경,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종욱, 박병기 (2007). 성취목표지향성 개념의 재분화: 2×2×2 요인구조 모형의 구성. **教育心理研究**, 21(1), 105-127.
- 이지영 (2004). **진로미결정의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으로서의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장재윤, 김명언 (2005). 대학 4학년생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 성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1), 1-23.
- 이주일 등 (2008). **현대 심리학 이해**. 서울. 학지사
- 이현림, 송재영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 장선량 (2004).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년 수준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 학생생활연구**, 12, 105-126.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애리 (1998).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 5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지혜 (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오홍석 (2011). 조절초점과 인지적 기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2)**, 123-143.
- 조향, 김계현, 이자명 (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10(4)**, 2099-2113.
- 천석준, 이기학 (2008). 신경증, 불안, 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경로모형 검증: 조절초점이론의 관점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2(4)**, 93-110.
- 최동선, 정철영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職業教育研究**, **22(1)**, 115-143.
- 최현정 (2006). **희망과 성취목표가 진로포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 (201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 한국교육개발원 (201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DB**.
- Anderman, E. M., & Young, A. J. (2006). Motivation and strategy use in science: Individual differences and classroom effect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1*, 811-831.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271.
- Barrik, M. R., Mount, M. K., & Strauss, J. P. (1993). Conscientiousness and performance of sales representatives: Test of the mediating effects

- of goal sett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5), 715-722.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 in college woma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lau, G. (1993). Furth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and voluntary individual turnover. *Personal Psychology*, 46, 313-330.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Blustein, D. & Flum, H.(1999).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of interests and exploration in career development. Savickas, M. L., & Spokane, A. R.(Eds.), *Vocational interests: Meaning, measurement, and counseling use*. Palo Alto, Davies - Black, 345-368.
- Busato, V. V., Prins, F. J., Elshout, J. J., & Hamaker (1999). The relation between learning styles,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higher educ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129-140.
- Caldwell, D. F., & Burger, J. M. (199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job applicants and success in screening interviews. *Personnel Psychology*, 51(1), 119-136.
- Costa, Jr. P., Terracciano, A., & McCrae, R. R. (2001).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cross cultures: Robust and surprising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2), 322-331.
- Cote, S., Saks, A. M., & Zikic, J. (2006). Trait affect and job search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 233-252.

- Chamorro-Premuzic, T., & Furnham, A. (2003). Personality traits and academic examination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237-250.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273.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461-475.
- Elliot, A. J., & Harackiewicz, J. M. (1996).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61-475.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 Greenhaus, J. H., & Skarew, N. D.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1-12.
- Hardin, E. E., Varghese, F. P., Tran, U. V., & Carlson, A. Z. (2006).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self-constru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2), 346-358.
- Harmer, R. J., & Bruch, M. A. (1997). Personality factors and inhibited career development: Testing the unique contribution of shy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382-400.
- Heaven, P. L., Mak, A., Barry, J., & Ciarrochi, J. (2002). Personality and family influences on adolescent attitudes to school and self-rated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453-462.

- Higgins, E. T. (198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self-regulatory and self-evaluative process: A developmental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57*, 407-444.
- Hoye, G. V., Hooft, E. A. J., & Lievens, F. (2009). Networking as a job search behaviour: A social network perspectiv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2(3)*, 661-682.
- Kanfer, R., Wanberg, C. R., & Kantrowitz, T. M.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 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5)*, 837-855.
- Komarraju, M., & Karau, S.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academic motiv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557-567.
- Lee, H. Y., &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freshman from intact famili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 279-293.
- Locke, E. A., & Latham, G. P. (2002). Building a practically useful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motivation: A 35-year odyssey. *American Psychologist, 57(9)*, 705-717.
- Lounsbury, J. W., Tatum, H. E., Chambers, W., Owens, K. S., & Gibson, L. W. (1999). An Investigation of career decidedness in relation to "Big Five" personality constructs and life satisfaction. *College Student Journal, 33(4)*, 646-652.
- McCrae, R. R., & Costa, P. T. (1999). John, Oliver P. (Ed); Robins, Richard W. (Ed); Pervin, Lawrence A. (Ed), (2008).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159-181.

- McCarthy, J., & Goffin, R. (2004). Measuring job interview anxiety: Beyond weak knees and sweaty palms. *Personnel Psychology, 57*, 607-637.
- Meece, J. L., & Samuel, D. M. (1999). Change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hievement Goals for Reading and Writing: Results of a Longitudinal and an Intervention Study,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3*(3), 207-229.
- Nurmi, J. E., Salmela-Aro, K., & Koivisto, P. (2002). Goal Importance and Related Achievement Beliefs and Emotions during the Transition from Vocational School to Work: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2), 241 - 261.
- Newman, J. L., Fuqua, D. R., & Minger, C. (1990). Further evidence for the use of career subtypes in defining career statu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78-188.
- O'Hare, M. M., & Tamburri, E. (1986). Coping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255-264.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 Paul, J. H. (2010).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09,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98-142.
- Reed, M. B., Bruch, M. A., & Hasse, R. F. (2004).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3), 223-238.
- Roberts, B. W., & Robins, R. W. (2000). Broad Dispositions, Broad Aspirations: The Intersection of Personality Traits and Major Life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0), 1284-1296.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55(1), 68-78.

Saks, A. M. (2006). Multiple predictors and criteria of job search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 400-415.

Saks, A. M., & Ashforth, B. E. (2000). Change in job search behaviors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77-287.

Sharf, R. S. (2008). *Applying Career Theory to Counseling*. Seoul, Cengage Learning Korea Ltd.

Solberg, V. S., Good, G. F.,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Steffy, B. D., Shaw, K. L., & Noe, A. W. (198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job search behav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35, 254-269.

Stumpf, S. A., & Lockart, M. C.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exploration surv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191-226.

Taras, V., Kirkman, B. L., & Steel, P. (2010). Examining the impact of Culture's consequences: A three-decade, multi level, meta-analytic review of Hofstede's cultural value dimen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3), 405 - 439.

Triandis, H. C., & Suh, E. M. (2002). Cultural influences on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133-160.

Van Hooft, E. A. J., Born, M. ph., Taris, T. W., & Van der Flier, H. (2004). Job

search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inority-majority group difference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 366-390.

Wanberg, C. R., Hough, L. M., & Song, Z. (2002). Predictive validity of a multidisciplinary model of reemployment suc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1100-1120.

Zhang, L. (2002). Measuring thinking styles in addition to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445-458.

Zhang, L. (2003). Does the big five predict learning approach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431-1446.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CA: Pacific Grove, Brooks & Cole.

## ABSTRACT

###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by Cluster types based on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Achievement Goals**

Song, Ji Eu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cluster types based on Big 5 and Career Achievement Goals of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the indicator for differential diagnosis abou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presence of four clusters is revealed by the result from a cluster analysis with 568 college students in Seoul. Cluster 1 'Avoidance-intrinsic inflexibility' is characterized by the low openness, agreeableness, and the mastery goal, aiming to the performance-avoidance goal with high neuroticism. Cluster 2 'Achievement-self director' shows the high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nd openness pursuing the mastery goal and the performance approach goal. Cluster 3 'Avoidance-intrinsic confusion' typifies low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nd high neuroticism with the performance-avoidance goal. Cluster 4 'Achievement-stability pursuit' features high agreeableness and extraversion, and low neuroticism and openness, showing low levels of the performance approach goal and the performance-avoidance goal. Through

one-way ANOVA,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Achievement-self director' and others. Additionally, th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Avoidance-intrinsic confusion' and 'Achievement-stability pursuit' is confirmed. Based on this result, in the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ig five, Career achievement goals, Cluster analysis.

## 부 록

부록 1. 성격 5요인 척도  
(NEO-FFI)

부록 2. 성취목표 척도  
(진로장면에서의 성취목표지향성 측정)

부록 3. 진로준비행동 척도

안녕하세요?

본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이 설문지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성격과 동기 유형을 통해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성격과 동기의 특징 및 양상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에서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어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정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연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질문내용을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송 지 은 드림  
지도교수: 이 정 윤

< 인적사항 A >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기타(        )
3. 나이: 만 (        )세
4. 학교유형: ① 남녀공학    ② 여자대학
5. 전공계열: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상경계열    ④ 법학계열  
              ⑤ 생활과학계열    ⑥ 사범계열    ⑦ 예체능계열    ⑧ 의학/간호계열  
              ⑨ 기타:(        )

1. 다음은 당신의 평소 모습을 설명하는 문항들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물건들을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로 간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자주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잘 웃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일단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으면, 나는 그 방식으로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가족이나 동료들과 자주 논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을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자신이 혼란에 빠지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자신이 특별히 낙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예술과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경향성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그다지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매우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18	학생들에게 논쟁이 되는 강연을 듣게 하는 것은,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할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보다는 협력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자주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활동적인 장소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시를 읽어도 거의 또는 전혀 감동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때때로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대체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새로운 음식과 외국 음식을 자주 먹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29	허용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여러 상황이 주는 분위기나 느낌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나는 자주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쾌활하고 활기찬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결정은 종교지도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39	어떤 사람들은 내가 냉정하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한번 결심하면,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일이 잘못될 때 나는 자주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쾌활한 낙천주의자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43	때때로 시를 읽거나 예술 작품을 보면, 나는 강한 감동을 받고 흥분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주장이 강하고 완고하다.	①	②	③	④	⑤
45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거나 의지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거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7	내 생활은 매우 바쁘게 진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주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대체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항상 일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51	나는 자주 무기력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52	나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는 지적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4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는 정리정돈하면서 사는 것이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56	나는 때때로 수치스러움 때문에 어디로든 숨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7	나는 사람들을 지도하기보다 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58	나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생각하기를 자주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59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0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당신이 진로에 관하여 갖는 동기를 설명하는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 (●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의 경쟁률이 치열하더라도 도전해 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진로분야에서 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직업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직업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교수님, 부모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진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결정한 진로를 통해서 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졸업 이후 취직을 못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취업관련해서 내가 부모나 주위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잘못된 진로결정을 내릴까봐 걱정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남들보다 좋지 못한 직장에 가게 될까봐 걱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취직을 하려는 이유는, 졸업 후 백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당신의 진로준비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관이나 혹은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책자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①	②	③	④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8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진로 지원실 또는 카운슬링 & 리더십 센터등의 상담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 학원 등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 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 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